

# 시간당 51mm 집중 호우...광주·전남 피해 속출

### 어린이집 천장 무너지고 상가·도로 침수...인명피해는 없어 13일까지 최고 120mm 장맛비...지반 약화된 상태 안전 유의

광주·전남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11일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피해 뿐 아니라 도심 어린이집 천장과 아파트 입구 천장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특히 광주·전남에 국지성으로 쏟아지는 강한 비가 12일까지 전망되고, 13일에는 장마전선에 의한 장맛비까지 예고돼 있어 피해가 더 늘어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전 지역에 11일부터 12일까지 불안정한 대류운에 따른 국지성 호우로 50~120mm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강한 햇볕에 지면이 뜨거워져 고온의 공기가 상층에 발달된 찬 공기의 저기압과 충돌해 발생한 대류운이 불안정하게 발달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를 쏟아내는 것이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11일 지역별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광주 51.7mm, 여수(거문도) 50mm, 함평(월야) 42.5mm, 순천 41mm, 구례(피아골) 34.5mm, 무

안(해제) 34mm, 함평 33mm 등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와 전남 11개 시군(무안·영광·장성·함평·담양·나주·화순·곡성·순천·구례·신안)에 차례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1mm의 강한 비가 쏟아지자 광주·전남 곳곳에는 비 피해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보육실 천장이 무너졌고, 어린이집 인근 아파트 출입구 천장의 철재 구조물도 떨어졌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는 비 피해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북구 중흥동·연제동·양산동에 있는 주택과 상가

가 침수됐고, 남구 진월동 도로변과 북구 임동오거리·동운고개·광주역 광장 일대 도로가 빗물에 잠겼다. 동구 계림동과 서구 금호동·화정2동·농성동 등지에서도 빗물이 역류해 도로가 침수됐고, 서구 마북동과 유촌동에서는 가로수가 부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서구 화정2동의 주택에서는 담이 무너졌고 서구 상무2동 쌍학공원에서는 토사가 유출됐다. 광산구 공향역사거리 일대에 침수돼 경찰이 일시적으로 도로를 통제하기도 했다. 낙뢰로 인한 정전 피해도 발생했다. 고압전선이 낙뢰로 인해 끊어져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북구 월출동 일대에 266가구에 전력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1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일까지는 발달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지만, 13일에는 장마전선에 의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이후 장마전선은 중부지역으로 올라갔다가 15일께 다시 남하해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2일까지는 강한 비가 내리다 가다가 반복하겠다"면서 "광주·전남에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금속노조 "父子가 산재 사망...중대재해처벌 강화해야"

### "원·하청 등 전 사업장 확대를"

부자가 10년 터울로 산업현장에서 산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속노조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영암군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불산단 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특별 근로감독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일 대불산단 내 선박업체에서 홀로 선반 해체작업을 하던 A씨가 승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대불산단 사고 원인을 밝히고 원·하청 사업주와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의 유가족도 참여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 2003년 남편을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잃고 이번엔 큰아들마저 산재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영암군지부는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불산단 내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사망했다"면서 "대불산단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원·하청 대표이사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도 "2대에 걸친 산재 사망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빗길 교통사고 사망 10명 중 3명 장마철에 발생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가 장마철에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연일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2020~2022년)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

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돼 빗길 고속도로 운전시 주의가 요망된다. 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248명)가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에 의해 숨졌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았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상악화 시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운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시, 5·18 보상 신청 우편 접수 받는다

### 접수 방식 개편·홍보 늘리기로

광주시가 지난 3일 재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가 주목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7월 4일자 광주일보 7면)에 접수 방식과 홍보 수단을 개편하고 나섰다. 현장 접수뿐 아니라 우편접수도 받으며, 광주시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거는 등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5일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에 대한 우편접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내로 광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접수 개시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낼 땐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와 경위서 등 서류를 첨부해 광주시청 민원실 앞으로 발송하면 된다. 기존에는 전국 각지에 퍼진 추가 신청 대상자들이 반드시 광주시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를 해야 했는데, 이 방식이 구시대적이고 불편하다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라 별도의 접수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또 홍보·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접수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다는 지적에 홍보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광주시는 최근 청사 인근 도로변에 보상 신청 접수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게시했으며, 청사 출입구와 민원실 내부, 광주시의회 입구 등지에 접수처 위치를 알려주는 입간판을 설치했다. 전국 20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접수 사실을 알릴 계획을 세우고 사업주체인 행정안전부에 홍보 예산 7000만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불편함 없이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풍암호수 수질 개선안 두고 주민협의체 '내홍'

### 광주시 수정안 찬반투표 부결 회원 간 이전에 고성 오가기도

약취문제로 수질개선안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풍암호수를 두고 주민협의체가 광주시고 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풍암호수 주민협의체는 11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회의를 열고 풍암호수 수질개선안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다. 수정안은 광주시가 고시한 수질개선안을 일부 받아들여 수심을 2.8m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당초 광주시는 풍암호수를 매립해 수심을 1.5m로 낮추고, 수량도 15만t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시했으나, 수정안에는 수심을 2.8m까지 유지하고 수량은 29만t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동 대표·회원 등 27명이 참여한 협의체 투표에서 1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 8명이 기권하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주민협의체 스스로 낸 수정안조차 불발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질개선안에 대한 이견으로 회원들과 고성이가 오가는 등 갈등이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주민협의체 회장의 재신임 여부도 안건으

로 올라왔으나 수정안 찬반투표를 두고 갈등이 고조돼 결국 재신임 여부는 결정되지 못했다. 주민협의체는 이번 투표 결과를 두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기권인 3분의 1이 넘는다는 점에서 적법한 투표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김용섭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부회장은 "회원들 간 견해 차이가 심하고 기권표가 8표나 나와 의견이 충분히 모이지 않은 점은 아쉬우나,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개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음 주민협의체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일보 71년

## 호남 최대 부수


## 열독률 호남 1위



## 정읍시

### 기부하고, 혜택받고, 지역발전에 도움까지...

지금  
기부하기



# 정읍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2023.1.1.부터 전국 지자체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모금된 기금은 지역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참여	개인만(법인 불가), 연간 500만원 한도
제공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16.5%) +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기부금	주민 복리 증진사업,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b>고향사랑 e음</b> · 방문 기부 - <b>NH농협</b>

### 정읍시 답례품

농 특 산 품	쌀, 귀리, 쌈채소, 토마토, 만감류, 잡곡류, 태추단감
가 공 식 품	고춧가루, 마시는 죽, 감식초, 전동주, 쌍화차, 한과, 기름세트, 떡, 복분자, 된장·간장, 둥근마즙, 청국장
제 조 품	기능성 삼푸, 케어팩
고가답례품	한우, 지황제품, 마옥고

→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또는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

## 내 고향을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 정읍고향사랑기부로 함께 해 주세요!

• 문의 : 시민소통실 대외협력팀 063-539-5067~5068